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모습 찾는다”



‘박진영·싸이’ SBS 새 오디션...보이그룹 두 팀 선발 세계 무대 활동



SBS TV 새 예능 ‘라우드’의 심사위원을 맡은 박진영, 싸이(오른쪽).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과 피네이션의 수장 싸이가 나선 SBS TV 새 오디션 프로그램 ‘LOUD:라우드’(이하 ‘라우드’)가 지난 5일 베일을 벗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진영과 싸이의 만남, 그리고 ‘라우드 센터’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라우드’를 통해 아이돌 프로듀서로서 첫발을 내디딘 싸이(본명 박재상·44)는 “박진영과 내가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처음”이라며 설렘을 표했고, 박진영(49) 역시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운 것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1라운드에서는 ‘빙판 위의 아이돌’ 15세 이동현이 특별한 작곡가를 선보였고, 이어 은휘가 자작곡과 자작랩을 연이어 자랑했다. 케이주와 고기 등 일본인 참가자들, 그리고 직접 만든 곡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인 다니엘 제갈도 화제가 됐다.

‘라우드’는 박진영과 싸이가 각자의 회사를 대표할 새 보이그룹 두 팀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최종 멤버들은 올 하반기 데뷔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된다.

박진영은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안에 가득 찬 친구들을 뽑겠다”며 “옛날에는 가수들의 능력을 회사가 포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특별한 친구가 미래의 케이팝 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런 심사 기준에 맞는 특별한 참가자가 (과연) 있을까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데 첫날 녹화를 하고 망하지 않았다.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춤, 노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봤던 오디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싸이는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초의 부분 많이 있어서 긴장을 많이 했었다”며 “저의 아주 사사로운 선택

들이 타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다 보니 무겁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줬다”고 말했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 특이하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걸 20년 동안 계속했더니 특별한 게 생긴 것 같다”며 “특이한 친구를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면은 저와 진영이 형의 어릴 적을 보는 듯하면서도 외관은 가장 저희 같이 많은 친구를 뽑자고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를 대표할 보이그룹을 뽑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만큼 박진영은 “처음엔 많은 시행착오를 무조건 겪기 때문에 (싸이의 회사에) 가는 친구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싸이는 “JYP에는 너무 많은 아이돌 가수가 있어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다르다”고 견제했다.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은 박성훈 CP는 “20세기에 박진영을 낳고 싸이를 길러낸 대한민국 사회가 21세기에 길러내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활영을 하면서 평범함에서 나오는 특별함이 가진 힘을 보여 저희도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이환진 PD는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두 심사위원이 때로는 베테랑처럼 때로는 과감한 신인처럼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배우 채림
3년만에
방송 복귀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7월9일 첫 방송

배우 채림(사진)이 JTBC 예능 ‘용감한 솔로 육아-내가 키운다’로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JTBC는 채림과 김구라, 조운희, 김현숙, 김나영이 ‘용감한 솔로 육아’에 출연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 달 9일 밤 9시에 첫 방송 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해 각종 육아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일상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채림은 지난해 12월 중국 배우 가오쯔치와 이혼한 후 5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만큼 실전 육아 팁을 전수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들과의 솔직한 일상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김구라는 기존 이미지와 달리 멤버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역할을 맡는다. 5살 딸과 ‘성장형 육아’를 보여줄 조운희, 7살 아들을 둔 김현숙, 두 아들의 엄마이자 워킹맘인 김나영의 일상이 가장 많이 공개된다. /연합뉴스



한식의 기본을 가르치다

KBS2, 28일 ‘백종원 클라쓰’...성시경 출연

KBS 2TV는 오는 28일 백종원 대표와 가수 성시경이 출연하는 예능 ‘백종원 클라쓰’를 첫 방송 한다고 최근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백 대표가 ‘글로벌 한식 새내기’들에게 한식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성시경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제자들과 함께 미션에 참여하며 음식 문화 토크도 끝나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첫 티저 영상에서는 백 대표와 성시경이 KBS 구내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8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청춘남남’의 쿨~한 연애 이야기

김조광수 감독 8년만의 장편...프로참견러 순자 역 이정은도 출연

김조광수 감독의 8년 만의 장편 신작 ‘메이드 인 루프탑’은 ‘청춘남남’의 연애 이야기를 여는 청춘남녀의 풋풋한 사랑만큼 밝고 유쾌하게 풀어간다.

영화는 3년간 만난 남자친구 정민(강정우)에게 가짜 이별 통보를 했다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난 최준생 하늘(이홍내)이 BJ로 활동하는 친구 봉식(정휘)이 사는 옥탑방을 찾으면서 시작된다.

하늘은 정민과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싶지도 않다. 연인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에 풀려대 대응하고 싶지만, 정민이 자신을 밀어내면 곧 울음이 터질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정민의 말에는 애써 토라진 척해도 씹혀거리는 입꼬리를 숨길 수가 없다.

“마흔까지만 살 거야”라며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듯 자유롭게 사는 봉식은 사실 마음 가는 남자 민호(곽민규)때문에 배드민턴을 치러 간다. 하지만 막상 민호의

적극적인 관심에는 자꾸만 뒷걸음을 친다. 봉식은 세상에서 가장 쿨한 사람처럼 굴지만, 사실 상처받게 될까 봐 두렵다.

영화는 성 정체성에 고민하는 주인공들로 어두운 분위기가 깔린 쿼터영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김조 감독의 바람대로 사랑에 서툰 청춘들의 싱그러움과 옥탑방을 루프탑이라고 부르는 낭만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

배우들의 연기도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악역 지청신을 연기했던 이홍내는 새침하고 사랑스러운 하늘로 완벽하게 변신한다. 정휘는 화려한 패전의 웃음을 찡찡하게 소화하며 겉보기에는 발랄하지만 속은 여린 봉식을 설득력 있게 연기한다.

봉식을 향한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연인 민호로 분한 곽민규, 옥탑방 아래층에 사는 프로 참견러 순자를 연기한 이정은 등도 안정감 있는 연기로 극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23일 개봉. 상영시간 87분. 15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